지방의 선택! 희망2007

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 4차 공동 여론조사

정동영 후보 광주, 전남·북서 38.3% 1위

광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17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표심을 알아보기 위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다.

지난 6월과 8월, 10월에 이어 네 번째인 이번 조사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공식 출마 선언 직후인 7일 오후 2시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(Research & Research : 대표 노규형)에 의뢰해 실시됐다.

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와 숙달된 전문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 방식을 사용해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3.8%였다.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서 ±3.1%포인트다.

대전·충청 이회창 31.8%, 이명박 31.3% '박빙'

■ 대선 후보 지지도

◇**전국 지지도**=지난 3차례 조사에서 40~50%대의 고공 지지율을 지켜왔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 선언 이후 30%대로 내려앉았다.

이명박 후보는 39.8%를 얻어 여전히 선두를 달렸지만 3주 전인 지난 달 15~17일 조사 때보다 15.2%포인트 하락했다. 이명박 후보 지지율은 지난 8월 제2차 조사 때 59.9%, 지난 달에는 55.0%로 차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
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회창 후보는 단숨에 19.8%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. 여기에는 출마 기자회견의 '후광 효과'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 선두와 격차는 20%포인트였다.

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65.2%가 '이명박'을, 23.7%는 '이회창'을 선택했다. 이 전 총재의 경우 자신의 평균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박근혜 전 대표 지지층이 일부 이탈한 영향으로 보인다.

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0.5%로 두 자릿수에 턱걸이하며 3위로 내려앉았다. 정 후보 지지율은 지난달 3차 조사 때의 18.3%보다 7.8%포인트 하락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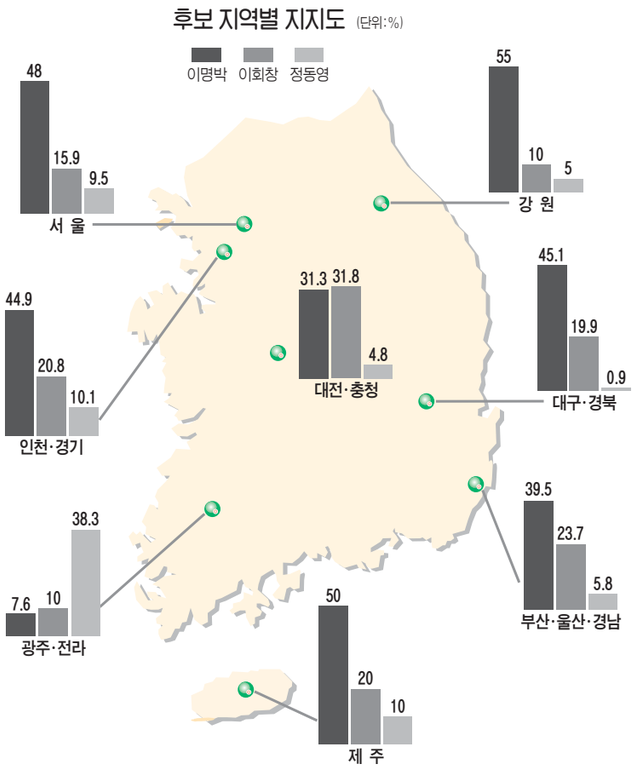
이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3.9%,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3.4%,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1.7%를 각각 기록, 지난달에 비해 각각 1.3%P, 0.4%P, 2.6%P 떨어졌다.

이회창 후보의 출마 선언 이후 5개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전반적인 지지율 분포는 1강(强), 2중(中), 3약(弱) 구도로 평가된다.

◇**지역별 지지도**=광주와 전남·북 등 호남지역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38.3%를 얻어 지난달에 이어 선두를 고수했다.

이회창 후보는 10.0%로 2위, 권영길 후보는 7.9%로 3위를 달렸다. 이명박 후보는 지난달(15.5%)의 절반 수준인 7.6%로 떨어져 4위로 내려앉았으며 이어 이인제 후보 4.8%, 문국현 후보 3.8% 등이었다.

이회창 후보의 출신 지역인 대전·충청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31.8%를 얻어 이명박 후보(31.3%)를 오차범위 내에서 추월하며 1위를 차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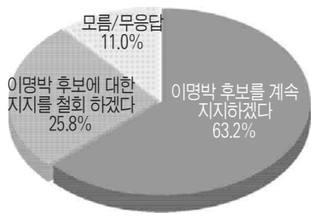


이회창 후보는 부산·울산·경남(23.7%)과 인천·경기(20.8%)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었다.

한나라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영남권의 경우 대구·경북에서는 이명박 45.1%, 이회창 19.9%, 부산·울산·경남에서는 이명박 39.5%, 이회창 23.7%의 비율을 보였다.

이명박 후보는 서울 48.0%, 인천·경기 44.9% 등 호남과 충청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.

■ BBK 연루시 지지 의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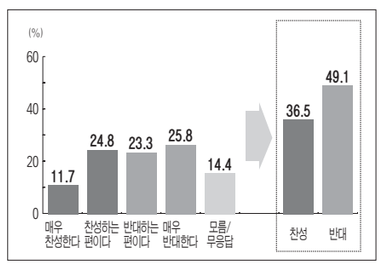
"이명박 지지 철회하겠다" 25.8%

다음 주 송환 예정인 김경준 BBK 전 대표가 '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관련됐다'고 주장할 경우 이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63.2%가 '계속 지지하겠다'고 응답, '지지를 철회하겠다'(25.8%)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

'계속 지지' 응답은 화이트칼라(73.0%), 한나라당 지지층(66.9%), 이회창 전 총재 대선 출마 반대자(70.7%) 등에서 특히 높았다.

그러나 이명박 후보 지지자 가운데 4명 중 1명(25.8%)이 '지지 철회' 의사를 보여 BBK 사건이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.

■ 이회창 후보 출마 찬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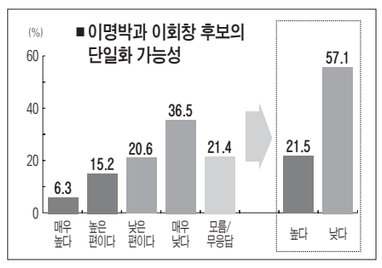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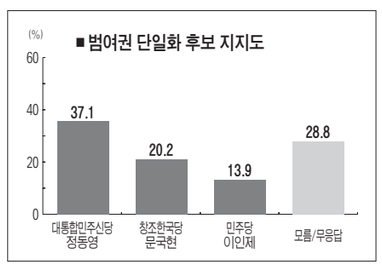
'보수대 보수' 경계 "출마 반대" 49%

이회창 후보의 대선 출마에 대해 '반대한다'는 응답이 49.1%('매우 반대' 25.8%, '반대하는 편' 23.3%)로 '찬성한다'는 응답 36.5%('매우 찬성' 11.7%, '찬성하는 편' 24.8%)보다 12.6%포인트 높게 나타났다.

'찬성' 응답은 30대(42.5%)와 자영업자(44.5%)층에서 가장 많았고, '반대' 의견은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층(65.7%)과 진보 정치성향자(61.2%)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. 여기에는 이 후보의 출마로 대선구도가 '보수 대 보수'의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.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'반대'가 52.4%로 '찬성' 39.8%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

■ 李-昌, 범여 후보 단일화





"李·昌 단일화 안될 것" 57.1%
범여 정동영 37%·문국현 20%

◇**이명박-이회창 후보 단일화 가능성**=정권교체를 위한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'가능성이 낮다'는 응답이 57.1%로 '가능할 것'(21.5%)에 비해 2.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. '가능성이 낮다'는 응답은 진보적 정치성향자(69.4%)와 블루칼라(69.1%), 학력이 높을수록(대재 이상 64.3%)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(69.0%)에서 높았다.

반면 '가능성이 높다'는 응답은 서울 거주자(28.3%), 한나라당 지지층(24.4%)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◇**범여권 단일화 후보 지지도**=범여권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는 세 후보의 지지도를 살펴본 결과 정동영 후보가 37.1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문국현 후보 20.2%, 이인제 후보 13.9% 순으로 조사됐다.

'정동영'이라는 응답은 광주·전라 거주자(51.6%)와 화이트칼라(46.2%), 30대(44.4%) 및 19~29세(43.7%)에서, '문국현'이라는 대답은 자영업(26.9%) 계층과 학력이 높을 수록(대재 이상 25.0%)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■ 정당·국정수행 지지도

한나라당이 51.5%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지난 8월 60.3%, 10월 53.0%와 비교할 때 하락세가 지속됐다. 대통합민주신당은 7.7%로 후보 경선 직후인 지난달 조사 때보다 7.3%포인트 하락했다. 이어 민주노동당 3.7%, 민주당 2.6%, 창조한국당 1.3%, 국민중심당 0.4% 순으로 모든 정당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. 특히 '지지정당이 없다'거나 무응답층이 32.8%에 달해 부동층이 그만큼 많음을 반영했다.

"지지정당 없다" 부동층 32.8%

광주·전남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이 27.8%로 수위를 달렸고, 민주당은 11.4%로 2위를 지켰다. 한나라당은 11.0%를 얻었다.

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'잘 하고 있다'는 33.0%로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보다는 5.2%포인트 하락했다. '잘못하고 있다'는 부정적 응답은 60.9%(매우 21.3%, 대체로 39.6%)였다.

/정후식기자 who@kwangju.co.kr